

포교 텃밭 다졌다

계성 스님, 전법단 출범 1주년 맞아 지도법사 역할 강조



“포교를 하려면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어야 한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법단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전법단 지도법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보다 뛰어난 재가자가 있어도 재가자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전법단을 지원해야 한다.”

포교원은 중단차원의 새로운 포교방향을 제시하고 포교활동이 침

체된 곳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법단을 지난해 출범시켰다. 전법단은 △자문법사 △지도법사 △전법지원 △전법후원 팀을 조직해 계층·분야·지역별 법회 및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출범했던 전법단이 4월 29일 1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봉행된 기념식에는 혜종 스님, 계성 스님과 전법단 지도법사와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서는 모범사례 발표, 활동계획 보고 등 전법단 출범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혜종 스님은 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법의 수레가 후대에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법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교원은 지난 1년 동안 병원, 경찰, 군, 대학생, 교정교화 등 5개 분

야의 전법단을 설립했다. 또한 광주, 전남, 성남, 대구, 경북 등 3개 지역에서 지역 전법단을 발족했다.

올해 5~6월 중에는 장애인전법단, 이주민전법단, 울산·경남전법단, 대구·경북전법단이 출범할 예정이다며 향후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에도 전법단이 출범할 계획이다.

힘들게 사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출가사문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것이 계성 스님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스님은 지금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전법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계성 스님은 “포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포교 원력이 있는 스님들과 함께 전법단을 구성했다. 전법활동에 참여하는 스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단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재가자부터 스님들까지 조직 구성이 원활해지면 포교의 텃밭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아은 기자

‘저렴하게’ 사찰 음식 대중 앞에 성큼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 2·3호점 개점



도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 2호점이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

정보센터와 목동 국제선센터에 3호점이 개점됐다.

4월 28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 개점된 발우공양 2호점 ‘공’은 주변 직장인들의 아침을 책임진다. 아침 8-9시 한 시간 동안 매일 다른 종류의 죽을 시중의 절반 가격인 3000원에 판매한다.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사찰전통방식으로 요리된 찌개류, 국수, 냉면, 비빔밥, 도시락은 5000-9000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도시락은 맞춤형으로 사전 주문 가능하다.

이러 목동 국제선센터에 위치한 발우공양 3호점 ‘공감’도 5월 2일 문을 열었다. 공감은 냉면과 찌개류 등 주 메뉴를 7000-9000원 대에 판매한다. 연꽃을 통째로 담은 연화국수도 2인분에 1만 5000원으로 맛과 건강은 물론 오감을 정화시키는 메뉴도 선보인다.

발우공양 2호점은 1호점과 달리 대중적이다. 2009년 문 연 발우공양 1호점은 코스별로 2만5000원, 3만6000원, 5만3000원으로 한 끼 식사 값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메뉴도 한정적이어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고급음식점이라

는 이미지가 강해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이에 2호점은 분식류에서 찌개류까지 메뉴가 다양화하고 가격면에서도 일반 식당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재료는 1호점과 같이 국산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판매 수량을 늘려 수익을 내고, 단품 위주의 메뉴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총책임자 대안 스님은 “365일 사 람들로 북적이는 대중화된 사찰음 식점의 새 전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02)2031-2031

이아은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가 힘들다는 건 모르는 소리”

서호노인복지관 봉사자 임경자(수원사 반야회)



임경자(72)씨는 9년째 수원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관(관장 이용권)에서 어르신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식재료 손질, 배식, 설거지 등 급식소 전반의

일을 반야회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수원사(주지 성관) 반야회 24기인 임 씨는 2002년 복지관 개관 때부터 줄곧 봉사활동을 해왔다. 수원사 반야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공직자로 은퇴한 임경자씨는 한 동안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종교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원사에서 기초교리를 배웠다. 수원사는 기초 교리를 이수한 사람에게 한 해 반야회 가입을 허용,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임 씨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그러다보니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적어졌다. 봉사활동도 더욱 즐거워졌다.

“봉사활동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길이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경자씨는 퇴직 후 3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은 건강을 먼저 챙기라며 임 씨가 봉사활동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을 걱정스레 바라본다. 그러나 언제나 임 씨의 대답은 한결같다.

“전 지금 행복합니다. 부처님을 알게 됐고, 봉사를 통해 실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실 때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박기범 기자



경찰청 봉축 장엄등 점등법회 봉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월 28일 경성대 주관으로 경찰청 본청에 장엄등을 설치했다. 경찰청 본청의 봉축 장엄등은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를 전통등으로 형상한 것으로 도선사의 후원과 전통등연구회가 불사에 동참했다. 장엄등은 5월 10일까지 경찰청 본청 로비에 장엄등 예정이다. 한편 2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가 열렸다. 법회에는 혜종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이성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아은 기자

범종교연대, 구제역 토론회

‘구제역 해결과 범종교연합을 위한 범종교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4월 2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가 ‘구제역 이후 생명을 배려하는 축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를 나섰다. 이후에는 한국생명농업포럼 운영위원 조연정 목사가 ‘슬로푸드 운동’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천진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합천평화의집 지원

아름다운 동행(대표이사 자승)은 4월26일 원불교 2세환자들의 원대 합천 평화의집(운영위원장 혜진 스님, 이사장 윤여준)에 후원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아은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11주년 기념법회 성료

불교상담개발원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상담시리사 자격고시 품수식을 진행했다.

이아은 기자

“노래부르고 춤추다보면 나도 부처님”

블레협 제6회 찬불 율동제·제23회 연꽃노래잔치 성료

율동과 노래를 통해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행사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 이하 블레협)는 제6회 찬불 율동제와 제23회 연꽃노래잔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불교공연장에서 4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육천암 주지 정범 스님, 의정부 회룡사 주지 성건 스님, 용주사 포교국장 덕만 스님,

신흥사 포교국장 지상 스님을 비롯해 참가 사찰 어린이, 학부모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율동제에서는 삼선포교원 어린이회가 최우수상을, 용주사 어린이회가 우수상을, 육천암어린이회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연꽃노래잔치에는 신흥사 어린이 합창단이 연꽃노래잔치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 중창부분에는 원각사 어린이회가 최우수상

은 어린이가 수상했다. 노래잔치 독창부문에는 18명의 어린이와 청룡유치원, 은석초, 천태대 명화사, 회룡사, 신흥사, 봉은사 중창팀과 합창 3팀 등 170여 명이 참가했다.

김석두 블레협 사무총장은 “율동제와 연꽃노래잔치를 함께 진행해 어느 해 보다 성대하게 진행됐다. 매년 참가자들이 의상, 율동, 음악선곡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설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 www.yjkukak.com